TQQQ가 필요한 포트폴리오

**도입부**

(사례+문제제기)  
많은 컨텐츠들에서 TQQQ는 “위험하다.”,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하죠. 심지어 “TQQQ는 쓰레기다”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레버리지 ETF는 그 변동성 때문에 위험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쓰레기라고 불릴 정도로 가치가 없을까요?

(유인)  
저는 TQQQ를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활용해서 이렇게(그래프) QQQ보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데요. QQQ보다 수익률은 높으면서 변동성은 낮은 전략이죠. TQQQ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무조건 배척하는 게 과연 현명한 방법일까요?

(예상 사례)  
TQQQ에 대해 부정적인 분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그래프입니다. 나스닥100의 최대 낙폭 그래프 인데요. 닷컴 버블 붕괴 당신 TQQQ의 추정 MDD는 무려 99.47%! 입니다. 사실상 자산이 증발했다고 봐야 하는 수준이죠. 이 그래프가 사실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 그래프는 명확한 팩트입니다. TQQQ는 정말로 이렇게 극단적인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론 유인)  
하지만, 심플한 자산배분 전략만 활용해도 이렇게 MDD를 확으로 줄일 수 있는데요. 심지어 QQQ보다도 낮고 안정적으로 말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TQQQ와 자산배분 전략을 활용해, QQQ보다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높은 “포트폴리오 전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도 자산배분 전략의 관점을 확장해보세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론 1: 통념 변동성 끌림]**

일단, TQQQ의 위험성으로 자주 언급되는 **변동성 끌림**에 대해 간단히 정리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변동성 끌림은 **기하 평균과 산술 평균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학적 현상인데요. 산술이고 기하고, 수학적 현상이고, 복잡한 이론적 설명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프부터 보시죠.

그래프를 보시면, QQQ가 두 달 동안 주기적으로 3%씩 하락과 약 3.1% 상승하는 패턴을 반복했는데요. 완벽히 이상적으로 횡보한다고 가정한거죠. 참고로 이렇게 완벽하게 횡보하려면 3% 하락하고 3.1% 상승해야 합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단순히 기하 평균적 현상이죠. 이렇게 QQQ가 등락을 반복할 경우 TQQQ는 QQQ의 일간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니까.. 9% 하락 후 9.3% 상승하는 패턴을 따르게 됩니다.

문제는 TQQQ가 원래 가치로 돌아가기 위해 약 9.9% 상승해야 한다는 건데요. “산술적 수익률을 **일 단위로** 추종”하는 특성 때문에, TQQQ는 횡보하는 시장에서 벤치마크 지수보다 점점 흘러내리게 됩니다.

“이건 과도하게 비현실적으로 횡보장을 가정한거고, 현실에서 이렇게 고르게 횡보할 일이 있겠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변동 현상은 고르게 횡보하는 시장에서 만이 아니라, 큰 하락 후 회복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프) 예를 들어, 2022년 기준금리 인상 쇼크 당시 QQQ는 2023년 X월에 전고점을 회복했지만, TQQQ는 훨씬 나중인 2023년 X월에 겨우 회복했죠. 이 사례도 변동성 끌림의 한 예시 중 하나입니다.

네. **변동성 끌림은 실재하는 레버리지 ETF의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횡보 시장이나 큰 낙폭 후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죠.

(그래프)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은 **나스닥지수**입니다. 시클리컬로 포장된 어디 변방 국가, 박스형태 주가지수가 아니죠. 미국 경제와 기술주의 장기 성장을 반영한 대표적인 지수죠. 우리 모두 장기적으로 상승한다고 믿고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자산인데요. 이런 자산에 대해 변동성 끌림의 위험만 강조하는 건 지나치지 않나요? 오히려 전략 활용 기회를 놓치는 패착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나스닥지수의 장기적인 경향은 명백히 우상향합니다. (그래프 넘기며) TQQQ 역시 이런 장기 상승장에서 어마어마한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죠.

그럼 이제 변동성 끌림을 횡보장 말고 상승장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프) 예를 들어, QQQ가 20일 동안 매일 3%씩 상승한다고 해보죠. QQQ의 누적 수익률은 80%입니다. 반면, TQQQ는 무려 460%의 수익률을 기록하죠.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래프) 20일 동안 매일 3%씩 하락하면 QQQ는 -46% 하락하죠. 이때 TQQQ는 -84%로 하락합니다. 놀랍게도 하락폭은 3배를 넘지 않죠. 실제로 저도 2022년 23년 쇼크장에서 하락폭이 줄어드는 경험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ㅎㅎ

변동성 끌림 현상은 횡보 장세나 큰 폭의 하락 후 회복하는 장세에서는 분명히 단점이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공포감 만 부각된 측면이 있죠. TQQQ의 특징을 전략적으로 잘만 활용하면 오히려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데 말이죠.

**[본론 2]**

그럼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TQQQ가 위험한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그래프) 최대 낙폭(MDD) 99%에, 원금 회복에 걸리는 시간(TTR)도 17년이나 되는 어마무시한 녀석이죠. 하지만 “**수익률이 높다**” 라는 특성 하나 만으로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적은 자기자본으로 빠르게 **자산을 증식** 시킬 수 있으니까요. 자본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말이죠. 잘 다듬기만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이겁니다. 바로,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줄이는 **체리피킹 전략**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거죠.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자산배분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집니다. **정적 자산배분 전략**과 **동적 자산배분 전략**인데요.

**정적 자산배분 전략**은 이전 영상들에서 소개한 방식이죠. SCHD, QQQ 같은 위험자산과 채권, 금 같은 안전자산을 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죠. 비교적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면, **동적 자산배분 전략**은 MDD, 모멘텀 지표, VIX 등을 활용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적립식 투자처럼 시분할 시!분!할!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정적 자산배분 전략**을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정적 자산배분 전략을 활용해서 TQQQ의 단점을 줄이고, QQQ보다 수익률은 높이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기초 분석부터 빠르게 보시죠. **TQQQ의 누적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TQQQ는 놀라운 누적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동시에 현실적인 한계도 명확하죠. (그래프 넘기며) 최대 낙폭(MDD)은 무려 -99.47%로, 전 재산을 투자했다면 실제로는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얻기도 전에 견디지 못하고 나가떨어졌을 확률이 58,000%입니다. (그래프 넘기며) 원금 회복에 걸리는 시간(TRR)도 6411일로 약 17.5년이나 되죠. QQQ도 회복 시간이 15년으로 어마어마한데, TQQQ는 여기서 2년 이상 더 걸리죠.

(그래프) 5년 롤링 리턴 데이터를 봐도 5년 동안 연평균 200%이 넘는 경우도 있는 반면, 5년동안 평균 -50%씩 손실을 보는 지점도 있습니다. 멘탈관리가 불가능한 수준이죠.

보시다시피 **날 것 그대로의 TQQQ는 매우 위험**합니다. 저도 초기 시드머니를 만들 때는 적립식으로 TQQQ를 활용했는데요. 시드가 2억에서 3억을 넘어가면서는 단순히 적립식으로 담기는 어려운 상품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TQQQ를 조금 더 안전하고 이쁘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죠.  
역시나 또 등장하는 기본 양념 형제죠. \*\*TLT(장기채권)\*\*와 **Gold(금)**입니다. 안전 자산 형제를 넣어서, 섞고 섞고 돌리고 섞었습니다. (그래프) 누적 수익률 그래프가 이쁘게 펴졌네요. 수익률 그래프가 펴진 것 보다 중요한 건(그래프 넘기며) 리턴리스크 프로파일인데요. 이렇게 곡선형태로 안쪽으로 쑥 들어갔죠. 포트폴리오가 QQQ보다 “우위”에 있는 게 한눈에 보이네요. 수익률을 고정했을 때 QQQ보다 변동성이 낮은 전략이 존재하고요. 반대로 변동성을 고정했을 때는 QQQ보다 수익률이 높은 전략이 존재하죠.

저는 위험 추구 성향이 높아서 50% 이상 위험자산을 담는 전략을 주로 활용하는데요. 이번 영상에는 QQQ와의 비교를 한눈에 하기 위해 30:35:35 (TQQQ:TLT:Gold) 비율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누적 수익률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QQQ보다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경기 침체 시기에도 방어력이 좋은게 보이시죠?

* (그래프)이어서, **MDD**를 보시죠. -60.58%. 역시나 닷컴 버블 때네요. -60%도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QQQ -80%대 보다는 20%p이상 낮은 수치니까. 나름 선방했다고 볼 수 있죠. 99% 전손 처리 수준이었던 TQQQ가 엄청 얌전해졌네요.
* (그래프)**TRR**(원금 회복 기간)은 2416일로, 약 6에서 7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수준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15년에 비하면 크게 개선되었죠. 인생 7년 세이브했습니다.
* (그래프)**5년 롤링 리턴**에서도 꽤나 안정적인데요. 닷컴 버블을 제외하면 대부분 구간에서 0보다 높은 연평균 수익률을 나타냈네요. 특히, 상방은 QQQ와 비슷하지만, 하방에서 QQQ보다 훨씬 유리하죠. (그래프) 그래서 5년 롤링 리턴의 분포도 이렇게 안정적이죠.

**TQQQ를 차분하게 만든 포트폴리오..** QQQ보다 단순히 수익률만 높은 게 아니라, 안정성 측면에서도 꽤나 개선되죠? 이렇게 구성하면 TQQQ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상품처럼 보이시나요?

(그래프) 저는 자산 형성 초기에 TQQQ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2억에서 3억을 목표로, 5년 정도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했던 것처럼 TQQQ를 적립식으로 모으는 것도 배팅해 볼 만한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적립식 투자의 구조 자체가 시분할 효과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적립금보다 자산 수익률의 비중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점점 시분할 효과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언제까지나 TQQQ를 모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부쩍 커버린 자산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지만, 집도 사고 싶고, 다시 내려 앉을까봐 두려움도 들죠. 점점 안전 장치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TQQQ를 단독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성향에 맞게 **자산배분 전략**을 함께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아본 **정적 자산배분전략**만으로도 수익률을 높이고,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면, **동적 자산배분 전략**도 같이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특히, 저는 대학원에서 경기 침체 신호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분야에 꽤나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경기 상황에 맞춰 투자 전략을 조정하는 접근법은, 투자 성과를 개선할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이 분야는 파면 팔수록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 매력적이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큰 벽에 부딪치는 순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가 유튜브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데요. 그래서 동적 자산배분 전략은 이번 영상 반응을 보고, 좀 더 디벨롭할지 고민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활용하고 있는 분석자료와 워크 시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영상도 참고해주세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투자는 멘탈이다. 투멘이었습니다.